

# 朝鮮時代 陵域의 立地 와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A Study on Loca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of the Royal Tomb Sites in Chosun Dynasty.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李 昶 煥 · 金 龍 基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 Kyun Kwan University

Lee, Chang-Hwan · Kim, Yong-Gi

## I. 序論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人類는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공간에서 살기 위해 山水가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 살아가며, 死後에도 永眠하기 위해 吉地를 찾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王과 妃 무덤의 경우 더욱 그 제도과 政治·思想的 內容을 고려하여 造營되었을 것이다. 歷史的으로 이집트의 靈魂不滅說은 墳墓建築(Mastaba, Pyramid, Sphinx)과 墓地庭園(Cemetery garden)을, 印度의 이슬람문화와 思想은 타지마할(Taj Mahal) 墓廟 등을 造營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특히 權力階層의 경우 現世보다는 來世를 더욱 중히 여겼으며, 조상에 대한 崇拜思想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강했던 우리민족의 경우 墓苑 造營에 대하여 중요시 여겼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陵域에 대한 造景學의 연구를 통하여 傳統造景에 나타난 전통사상과 관련한 개념의 形象化 및 具象化를 통하여 計劃의 基準이나 規則등을 알아내어 韓國의 독특한 陵域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II. 研究內容 및 方法

본 論文은 陵域 造營時의 歷史的(時代別)·思想的·政治的 背景등 陵域의 立地와 景觀 그리고 空間構成 등의 理論的 背景을 調査하고 體系를 確認·整理하여 變遷 事項을 調査→分析→解釋하였다.

陵域의 造成에 따르는 立地와 空間構成, 構成要素(池塘, 點景物, 樹木)등의 特性에 대하여 物理環境의 空間分析 및 解釋을 통하여 陵域의 變化 過程을 糾明하였다.

研究의 內容의 範圍는 朝鮮時代 太祖 建元陵(1392-1910)으로부터 마지막 裕陵(純宗)까지 朝鮮時代의 40基 王陵을 대상으로 하되 南韓의 38基의 陵은 實測중심으로 北韓地域에 立地하고 李太祖 先代의 追尊陵 8基陵과 齊陵, 厚陵에 대하여는 文獻調査로 한정하였다.

본 研究의 調査 方法은 文獻 調査와 現地 實測 調査로 구분되며, 文獻調査는 關聯된 考證 資料와 歷史 史料를 통하여 思想的·歷史的 背景 과 理論에 중점을 두어 實施하였다.

現地調査는 方位計, 佩鐵, 輪尺, 平板測量, 光波測量機(Nikon Totalstation DTM-420 Series) 등으로 實測을 통하여 PC川의 Transit(T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光波測量機로부터 Download받아 도면작업용 프로그램인 AutoCAD14(Windows)를 사용하여 도면 작업함으로써 정밀도를 찾으려 하였다.

現地 調査는 1995년 7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본 調査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陵域 휴무일에 精密實測 및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分析 方法은 陵域의 造成 背景이 되는 思想的·政治社會的 背景 등은 文獻 및 史料를 통하여 분석하고, 陵域의 物理 環境의 空間 分析은 陵域에 대한 圖面 分析 및 測量과 사진 촬영 등 실사를 통하여 Excel 97과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陵域 공간내의 動線, 空間構成, 空間의 위계별, 仰角 構造, 構造物의 시각구조, 경사도, 구조물의 크기 등을 計量化하여 분석하였다.

分析을 통한 意味의 解釋은 文獻 分析和 物理的 環境 構成 形式에 대한 分析을 종합하여 時代的 政治的 思想的 背景이 立地와 景觀構成, 空間構成에 어떻게 구분되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났는지를 파악하였다.

### III. 結果 및 考察

본 논문은 朝鮮時代 傳統陵域空間의 陵域概念, 立地와 景觀, 空間構成, 構成要素에 대하여 공간 이해의 精密度를 높이기 위하여 고증자료를 통한 文獻調査와 현지정밀 測量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그 동안의 연구가 정밀 조사가 아닌 사진분석 및 단순한 답사형 논문이었던 한계성에서 벗어나 공간의 精密度測量和 實測을 통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연구의 精密度를 높여 하였다. 본 論文의 완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結果와 成果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陵域空間의 背景의 思想은 風水思想과 儒敎, 道敎思想 등이 주요사상이었으며, 朝鮮時代陵域 空間 造成의 틀은 自然順應思想등의 깊이 있는 解釋과 自然親和의인 朝鮮時代陵域의 傳統 造營觀을 糾明할 수 있었다.

朝鮮時代 陵域의 立地는 國都인 漢陽의 景福宮을 중심으로 參拜의 距離, 周邊陵域과의 距離, 方位, 道路와의 관계, 周邊山勢와 國防境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10里(4km)밖 100里(40km)안에 立地하며, 參拜距離, 周邊山勢 등이 주요 입지배경이었다.

朝鮮初期에는 國家창설의 운영논리인 儒敎의 논리를 기반으로 都城을 중심으로 周制의 원칙에 따라 坐墓右社의 원칙을 따랐으나, 이후에는 實學思想和 風水思想의 확산에 따라 都城을 중심으로 自然地勢에 맞게 風水: 吉地에 立地한다.

陵의 空間構成은 死後의 王이나 王妃를 위한 宮殿建築計劃의 概念에서 朝鮮時代의 統治理念인 儒敎와 性理學의 영향을 주로하여 東洋의 自然觀인 風水地理와 道敎의 영향을 받아 三門三朝, 前朝後寢, 風水의 조성원리에 따라 조성되었다.

空間區分은 視界領域을 포괄하는 陵域공간과 陵域의 내부공간을 구분하는 陵園空間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陵園은 封墳을 중심으로 한 陵寢空間(聖域의 空間), 丁字閣을 중심으로 한 祭享의 空間, 제례의 준비를 위한 進入空間등 3공간으로 구분된다. 進入空間(참배)은 속세의 공간으로 齋室과 연못(池塘), 祭享의 空間은 제례를 위한 수복방, 수라방, 참도 등이, 다음은 丁字閣 뒷면에서 封墳까지의 聖域空間으로 사자를 위한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陵域內에서의 主軸은 儒敎의 性理學의 위계성에 따라 陵寢→長明燈→丁字閣→紅箭門을 잇는 선은 直線軸을 기본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紅箭門앞의 禁泉橋와 齋室을 잇는 參拜道는 風水思想에서 지적되는 陵園앞의 進入空間 道路는 '之', '玄'의 형태가 좋아하여 曲線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았다.

陵園의 규모에서 祭享空間의 規模는 朝鮮前中期에는 紅箭門에서 丁字閣 들보까지 300尺(90m)을 기준으로 하여 지키고 있으나, 이후에는(寧陵) 實事求是의 性理學의 영향으로 자연의 지세에 따라 규칙을 달리하고 있다. 聖域의 空間의 規模는 거리와 형태가 일정치 않게 차이를 두고 있으나, 時代別로는 점차 規模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陵寢空間은 陵園의 死者의 陵穴이 있는 공간으로 陵寢空間構成상 上階(封墳)-中階(文人空間)-下階(武人空間)로 나누어진다. 이는 三神의 神仙思想和 朝鮮時代의 性理學을 背景으로 儒敎를 政治思想으로 지향하는 封建階級社會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陵域의 構成要素 중 池塘은 陵園 進入空間의 좌우 맞닿는 곳이 넓어 허한 경우에 입지하며 공간구성상 風水의 裨補次元의 의미가 있다. 陵域의 池塘의 형태는 朝鮮時代의 전통적인 池塘 형태인 方池圓島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方池 無島形이 있으며 朝鮮時代 말기에는 圓池圓島形도 나타난다. 이러한 陵域의 池塘들이 方池의 形態인 것은 天道의 원시적 재현으로 해석되며 小宇宙의 형성관으로 볼 수 있으며, 陰陽思想和 天人合一說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文獻上: 陵域의 植生은 소나무(松)가 가장 많이 配植되었으며, 다음은 전나무(楡)와 잣나무(栢)가 심겨있으며, 잣목(떡갈나무 추측)도 인위적으로 植栽되어 관리되었다. 이는 中國의 周時代의 身分別 墓域의 植樹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陵域 植生 현황은 조사결과 陵域의 배경의 숲은 松林이 많으며, 封墳을 중심으로 한 聖域의 공간에는 소나무(*Pinus densiflora* L. et Zucc.)가 절대적 우세를 보이며, 다음은 전나무(*Alies holophylla* Maxim.), 갈참나무(*Quercus aliena* Blume.), 떡갈나무(*Quercus dentata* Thunb)의 순으로 나타났다. 祭享空間의 경우 소나무(*Pinus densiflora* L. et Zucc.), 오리나무(*Alnus japonica* Steud.) 순으로 나타나며, 進入空間에는 구불구불한 之玄字 형태의 參拜路를 따라 소나무(*Pinus densiflora* L. et Zucc.), 떡갈나무(*Quercus dentata* Thunb), 오리나무(*Alnus japonica* Steud.), 잣나무(*Alies holophylla* Maxim.)의 순으로 나타났다.